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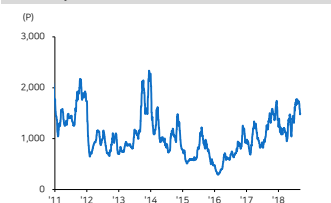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922.3	16.2	129,000	1.6	19.4	10.7	34.4	89.9	43.1	0.6	0.6	0.7	1.4
현대중공업주주	6,237.8	20.6	383,000	2.7	1.7	4.8	0.5	5.2	4.3	0.7	0.6	14.1	14.7
현대일렉트릭	655.2	5.2	64,200	1.7	2.9	-18.8	-43.7	6.1	5.3	0.5	0.5	9.3	9.7
현대건설기계	1,155.5	9.0	117,000	0.0	-5.6	-26.2	-30.8	7.4	5.5	0.8	0.7	11.7	13.9
삼성중공업	4,920.3	17.9	7,810	1.8	16.9	5.4	20.7	49.3	24.4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403.8	8.2	31,750	2.6	25.5	21.4	128.4	7.0	17.0	0.9	0.9	13.7	5.2
현대미포조선	1,976.0	9.9	98,800	3.5	5.0	11.9	25.5	21.3	15.4	0.8	0.7	3.6	4.8
한진중공업	280.5	7.0	2,645	1.0	0.4	-21.5	-20.1	53.2	13.3	0.4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3,123.2	22.6	115,000	-0.9	13.3	12.2	111.4	20.3	19.8	2.8	2.5	14.6	13.3
두산발켓	3,669.1	26.0	36,600	1.5	6.7	14.8	3.6	13.4	12.6	1.0	1.0	7.4	7.6
현대로템	2,635.0	2.1	31,000	-0.8	10.7	-3.1	65.3	40.0	27.3	1.8	1.7	4.5	6.3
하이록코리아	317.2	48.8	23,300	5.4	1.3	-22.6	3.6	10.5	9.6	0.9	0.8	8.8	9.0
성광벤드	337.5	16.2	11,800	7.8	9.3	-2.1	18.2	1,043.1	42.3	0.7	0.7	0.1	1.8
태광	343.2	13.3	12,950	7.0	5.7	3.6	7.5	77.3	37.8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745.5	15.0	14,900	1.4	1.7	-15.3	-2.9	24.6	9.0	0.5	0.5	2.6	5.2
두산인프라코어	1,956.7	19.7	9,400	0.0	-4.1	-8.3	8.2	6.2	5.7	1.0	0.9	17.6	16.3
HSD엔진	136.1	4.3	4,130	2.7	17.3	N/A	60.7	-15.9	-21.0	N/A	N/A	-4.5	-8.7
한국항공우주산업	4,332.8	14.5	44,450	0.0	16.1	-0.2	-6.3	37.4	27.7	3.7	3.3	9.6	12.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81.7	11.7	26,550	0.4	13.0	-9.8	-25.3	34.3	18.9	0.6	0.6	2.2	3.3
LIG넥스원	750.2	8.9	34,100	0.0	5.7	-31.0	-43.0	N/A	N/A	N/A	N/A	N/A	N/A
태웅	291.1	4.7	14,550	2.1	0.0	-17.3	-24.8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08.7	5.6	7,770	2.6	14.1	26.8	53.9	-39.8	20.8	2.7	2.5	-6.4	12.4
한국카본	299.4	13.9	6,810	1.6	18.8	11.1	27.1	79.0	21.0	0.9	0.9	1.2	4.5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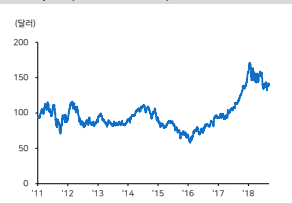
##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28 1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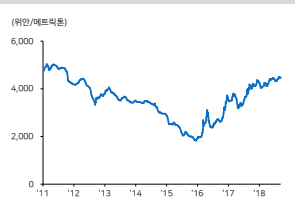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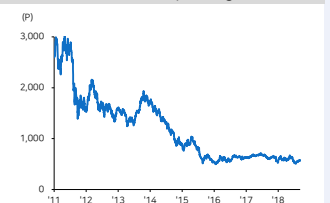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 +1.26 145.54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Trio get set to bid for Reliance's MJ FPSO

Reliance Industries가 인도 동부에 설치를 준비 중인 20억달러 규모 MJ FPSO 프로젝트 수주에 3곳이 넘는 글로벌 업체 또는 컨소시엄이 경쟁할 전망이다. Upstream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달 입찰이 시작되었고, 내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술 및 상업 입찰에는 일본 Modec, 삼성중공업, TechnipFMC-SBM Offshore 컨소시엄이 참여한 것으로 예상된다.

Reliance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조선소를 포함한 4~5개 업체가 참여했고, 주된 경쟁은 3개 업체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앞서 언급된 3개 업체 외에도 Saipem,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입찰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또 발주처는 내년 초에 EPC 계약 체결 후 2021년 중반 인도, 2021년 말~2022년 초 첫 생산을 목표로한다고 알려졌다. (Upstream)

## Infrastructure no longer the issue for LNG-fuelling growth

2020년 환경규제에 대응해 LNG 추진 방식 채택의 단점은 LNG 인프라 부족이 없으나, 최근 인프라투자 확장으로 보완되었다고 알려졌다. 현재 LNG bunker링 선박은 수주잔고 포함 18척이며, 글로벌 20개 주요 항구에서 LNG bunker링 시설을 갖춘 상태로 알려졌다. 향후 LNG 추진방식 채택 증가가 전망됨. (TradeWinds)

## Shell spearheads global march in LNG bunkering

오일메이저 Shell은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LNG bunker링 선도업체로 자리잡고 있음. Shell 관계자에 따르면 LNG는 타 연료 대비 1) 친환경 배출기준에 확실히 준수하며, 2) 원가경쟁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bunker링 투자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Shell은 현재 LNG bunker링 선박 6척을 보유하고 있음. (TradeWinds)

## 현대미포, 최대 8척 석유화학제품선 수주할 듯

업계에 따르면 Empire Navigation은 현대미포조선에 MR탱커 4+4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선가는 3,700만달러로, 친환경설비 장착에 따라 시장가격 대비 150만달러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미국 Cargill에 20년간 용선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0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음. (EBN)

## Ghana confirms LNG FRU contract with China's Jiangnan

가나 Tema LNG Terminal Co는 중국 Harbour Engineering과 Tema에 설치될 FRU(부유식 기화설비)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다. FRU는 중국 Jiangnan 조선소가 건조할 예정이며, 선가는 3.5억달러 수준임. Tema FSRU는 향후 18개월 내에 완공될 계획이며, 해당 지역 내 최초 터미널로 알려졌다. (TradeWinds)

## Japan jumps on 'booming' action of LNG bunkering

일본 국토교통부(MILT) 주도로 LNG bunker링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 지난 7월 일본 4개 업체는 Kawasaki 중공업에 3,500CBM급 LNG bunker링선박(LNGBV) 발주에 합의함. 4개 업체는 NYK Line, K Line, Chubu Electric Power, Toyota Tsusho Corp로 알려졌다. LNGBV 인도는 2020년 예정됨. (TradeWinds)

## "IMO 환경규제 해운시장 치킨게임 가속"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선사들이 저유황유를 사용해 연료비 상승과 동시에 채산성 악화가 예상됨. 머스크는 작년 연료비로 33억달러를 지출했으나, 2020년에는 20억달러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증가한 연료비는 채산성 악화로 소규모 선사의 퇴출을 강요할 전망이다. (선박뉴스)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검토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9월 1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9월 1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9월 1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